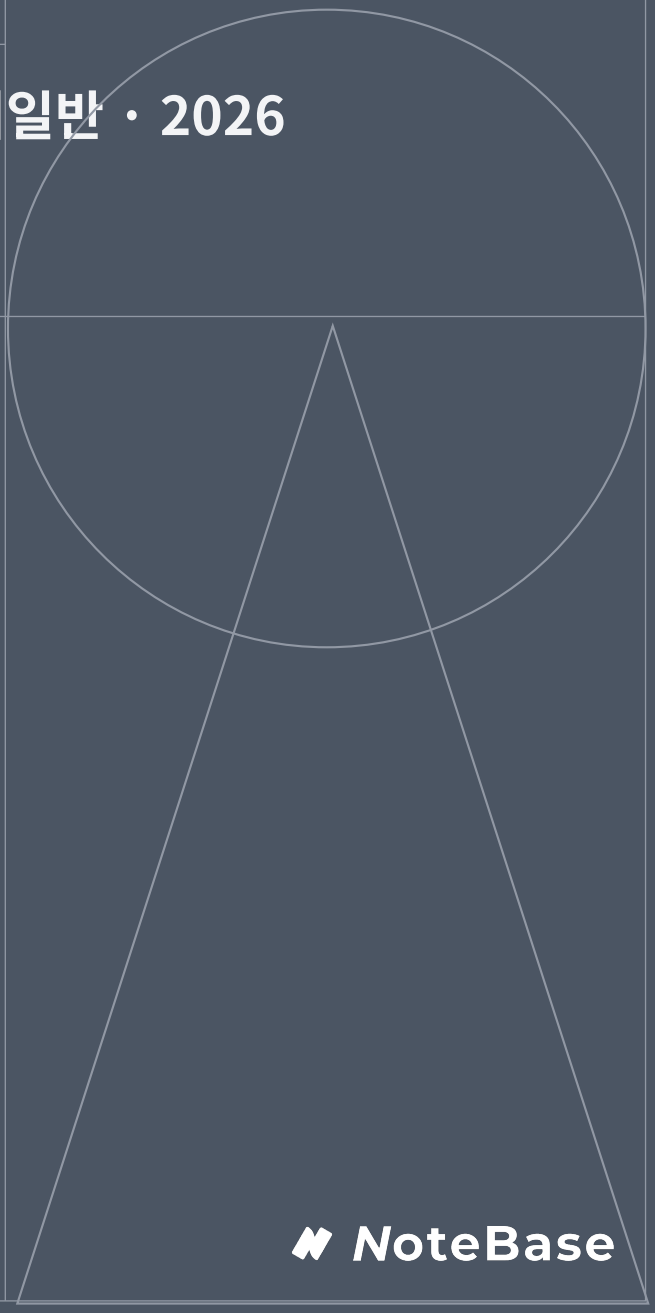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컴퓨터일반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컴퓨터일반 · 2026

공무원/계리직/9급 · 컴퓨터일반 · 2026

1. DRA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충전(refresh) 회로가 필요 없다.
ㄴ. SRAM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다.
ㄷ. SRAM에 비해 대용량 구성이 쉽다.
ㄹ.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지워진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RAM을 SRAM과 비교하여 재충전 필요 여부, 처리 속도, 집적도와 휘발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RAM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전하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들므로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하지만, 셀 구조가 단순하여 집적도를 높이고 대용량으로 구성하기 쉽다.
SRAM은 플립플롭 회로의 상태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 재충전이 필요 없고 DRAM보다 빠르지만, 셀 구조가 복잡하여 집적도가 낮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재충전 회로가 필요 없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DRAM은 저장 전하가 소실되므로 재충전 회로가 필요하다’이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 ㄴ은 틀리고 ㄹ은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ㄴ의 ‘SRAM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DRAM은 SRAM에 비해 처리 속도가 느리다’이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③ O — ㄷ과 ㄹ은 모두 옳다. DRAM은 셀 구조가 SRAM보다 단순하여 높은 집적도와 대용량 구성이 가능하고, 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지워진다.

④ X — ㄱ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재충전 회로가 필요 없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DRAM은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하다’이다. 또한 옳은 ㄹ이 빠져 있으므로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DRAM의 D를 단순히 빠른 메모리로 오해하거나, SRAM이 재충전 없이 데이터를 유지한다는 특징을 DRAM의 특징으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ㄱ의 재충전 여부와 ㄴ의 속도 비교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DRAM의 D를 동적, SRAM의 S를 정적으로 연결한다. 동적인 DRAM은 재충전이 필요하고 SRAM보다 느리지만, 구조가 단순하여 대용량 구성에 유리하다. 두 메모리 모두 반도체 주기억장치이므로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이다.

암기 포인트

DRAM은 재충전·느린 속도·대용량, SRAM은 무재충전·빠른 속도·소용량으로 구별한다. 둘 다 휘발성이다.

NoteBase

2. 연산을 수행한 후에 모든 피연산자의 입력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보존되는 명령어 실행 방식은?

① 0-주소 명령어 방식　② 1-주소 명령어 방식

③ 2-주소 명령어 방식　④ 3-주소 명령어 방식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연산 결과를 저장할 때 원래의 모든 입력 피연산자가 그대로 보존되는 주소 명령어 형식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소 수는 명령어에서 피연산자나 결과의 위치를 직접 지정하는 주소 필드의 수이다.
0-주소 방식은 스택에서 피연산자를 꺼내 연산한 뒤 결과를 다시 스택에 넣는다.
1-주소 방식은 누산기를 묵시적으로 사용하며 연산 결과가 누산기에 저장된다.
2-주소 방식은 두 주소 중 하나가 입력 피연산자와 결과 저장 장소를 겸한다.
3-주소 방식은 두 입력 피연산자의 주소와 결과 저장 주소를 따로 지정하므로 연산 후에도 두 입력 데이터가 모두 보존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0-주소 명령어 방식은 스택의 피연산자를 꺼내 연산하므로 입력 데이터가 모두 원래 상태로 보존되는 방식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0-주소'이며, 올바르게는 '3-주소 명령어 방식'이다.
② X — 1-주소 명령어 방식은 누산기의 기존 값이 연산 결과로 바뀌므로 모든 입력 피연산자가 보존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1-주소'이며, 올바르게는 '3-주소 명령어 방식'이다.
③ X — 2-주소 명령어 방식은 한 주소가 입력 피연산자와 결과 저장 장소를 함께 맡아 해당 입력 데이터가 결과로 덮어써진다. 틀린 표현은 '2-주소'이며, 올바르게는 '3-주소 명령어 방식'이다.
④ O — 3-주소 명령어 방식은 두 입력 피연산자의 주소와 결과 저장 주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연산 후에도 모든 입력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오답 포인트

주소 수가 적을수록 효율적이라는 인상만으로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제의 핵심은 명령어 길이나 실행 속도가 아니라 결과가 입력 피연산자의 저장 장소를 덮어쓰는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력 주소 두 개와 결과 주소 한 개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결과 전용 주소가 따로 있으면 입력 피연산자를 덮어쓰지 않으므로 3-주소 방식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3-주소는 입력 2개와 결과 1개를 분리하므로 입력을 모두 보존한다.

NoteBase

3. 소프트웨어의 기능 점수(function point)를 계산하기 위해 고려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 조회(EQ)　② 외부 출력(EO)

③ 외부 입력(EI)　④ 외부 논리 파일(ELF)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능점수 산정에서 고려하는 다섯 가지 사용자 기능 유형의 명칭과 약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점수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을 트랜잭션 기능과 데이터 기능으로 나누어 규모를 측정한다. 트랜잭션 기능에는 외부 입력(EI), 외부 출력(EO), 외부 조회(EQ)가 있고, 데이터 기능에는 내부 논리 파일(ILF),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EIF)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외부 조회(EQ)는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고 입력에 대응하여 정보를 조회하는 트랜잭션 기능이므로 기능점수 산정 대상이다.
② O — 외부 출력(EO)은 처리 결과를 시스템 경계 밖으로 제공하는 트랜잭션 기능이므로 기능점수 산정 대상이다.
③ O — 외부 입력(EI)은 시스템 경계 밖에서 들어온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처리하는 트랜잭션 기능이므로 기능점수 산정 대상이다.
④ X — '외부 논리 파일(ELF)'이라는 명칭과 약어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다른 응용시스템이 유지·관리하고 대상 시스템이 참조하는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EIF)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내부 논리 파일(ILF)의 '논리 파일'이라는 표현을 외부 파일에도 그대로 붙이고 약어를 ELF로 바꾸어 혼동을 유도한다. 외부 데이터 기능의 표준 명칭은 외부 인터페이스 파일(EIF)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능점수의 다섯 유형을 EI·EO·EQ·ILF·EIF로 대조한다. 선지에 ELF가 제시되면 표준 유형이 아니며 EIF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입력·출력·조회는 EI·EO·EQ, 파일은 내부 ILF·외부 EIF이다.

NoteBase

4. 우편물 관리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한 기능 요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은 자신이 발송한 우편물의 배송 상태를 추적한다.

② 직원은 자신이 취급한 우편물의 주소를 입력 또는 수정한다.

③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정지 시간이 1달에 1시간을 넘지 않는다.

④ 시스템은 우편물의 배송이 완료 예정일보다 이틀 이상 지연되면 관리자에게 알람을 발송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우편물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시스템이 수행할 기능을 나타내는지, 시스템의 품질이나 성능 조건을 나타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요구사항으로, 입력·수정·조회·알림 발송과 같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낸다.
비기능 요구사항: 시스템이 기능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요구사항으로, 성능·신뢰성·가용성·보안 등의 품질 기준이나 제약 조건을 나타낸다.
핵심 구별은 '어떤 동작을 하는가'이면 기능 요구사항이고,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이면 비기능 요구사항이라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객이 자신이 발송한 우편물의 배송 상태를 추적하는 것은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조회 기능이다.
② O — 직원이 자신이 취급한 우편물의 주소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시스템의 데이터 입력·수정 기능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월간 시스템 정지 시간을 1시간 이하로 제한한 내용을 기능 요구사항으로 본 점이다. 이는 시스템이 수행할 동작이 아니라 운영 중단 허용 범위를 정한 가용성·신뢰성의 품질 기준이므로, 올바르게는 비기능 요구사항이다.
④ O — 배송이 완료 예정일보다 이틀 이상 지연되면 관리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알림 기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에는 '정지 시간'과 '1달에 1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 하나의 기능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새로운 동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가용 수준을 제한한다. 반대로 ④는 '이틀 이상'이라는 시간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도 핵심이 알림을 발송하는 동작이므로 기능 요구사항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구사항의 핵심 서술어를 확인한다. 조회한다, 입력한다, 수정한다, 발송한다처럼 시스템의 동작을 말하면 기능 요구사항이고, 응답 시간·정지 시간·처리량·보안 수준처럼 기능의 품질이나 제약을 말하면 비기능 요구사항이다.

암기 포인트

기능은 '무엇을 하는가', 비기능은 '얼마나 잘하는가'이다.

NoteBase

5. 다음 워크시트에서 수식 '=MATCH(41,B2:B4,1)'을 입력했을 때 결괏값은?

	A	B
1	품목	개수
2	우표	25
3	봉투	35
4	상자	45

① 1 ② 2
③ 3 ④ 오류가 발생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MATCH 함수에서 세 번째 인수 1의 의미를 이해하고, 오름차순 범위에서 찾을 값 이하의 최댓값이 몇 번째에 있는지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찾을 값: 41
찾을 범위 B2:B4: 25, 35, 45
일치 유형: 1
범위는 25 < 35 < 45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사용할 공식

MATCH(찾을 값, 찾을 범위, 일치 유형)은 찾은 값의 범위 내 상대적 위치를 반환한다. 일치 유형이 1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범위에서 찾을 값 이하인 값 중 가장 큰 값의 위치를 반환한다. 따라서 41과 정확히 같은 값이 없어도 근삿값을 찾을 수 있다.

계산 과정

1. 41 이하인 값은 25와 35이다.
2. 이 중 가장 큰 값은 35이다.
3. 35는 B2:B4 범위에서 두 번째 값이므로 MATCH 함수의 결과는 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1은 값 25의 상대적 위치이지만, 41 이하의 최댓값은 35이다. 올바르게는 결과가 2이다.
② O — 35는 41 이하의 최댓값이고 B2:B4에서 두 번째에 있으므로 결과는 2이다.
③ X — 3은 값 45의 상대적 위치이지만, 45는 찾을 값 41보다 크므로 선택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35의 위치인 2이다.
④ X — 일치 유형 1은 정확히 41인 값이 없어도 조건에 맞는 근삿값 35를 찾으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결과 2를 반환한다.

오답 포인트

세 번째 인수 1을 정확히 일치로 오해하면 41이 범위에 없다는 이유로 ④를 고르기 쉽다. 또한 MATCH 함수는 셀의 행 번호가 아니라 지정한 범위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반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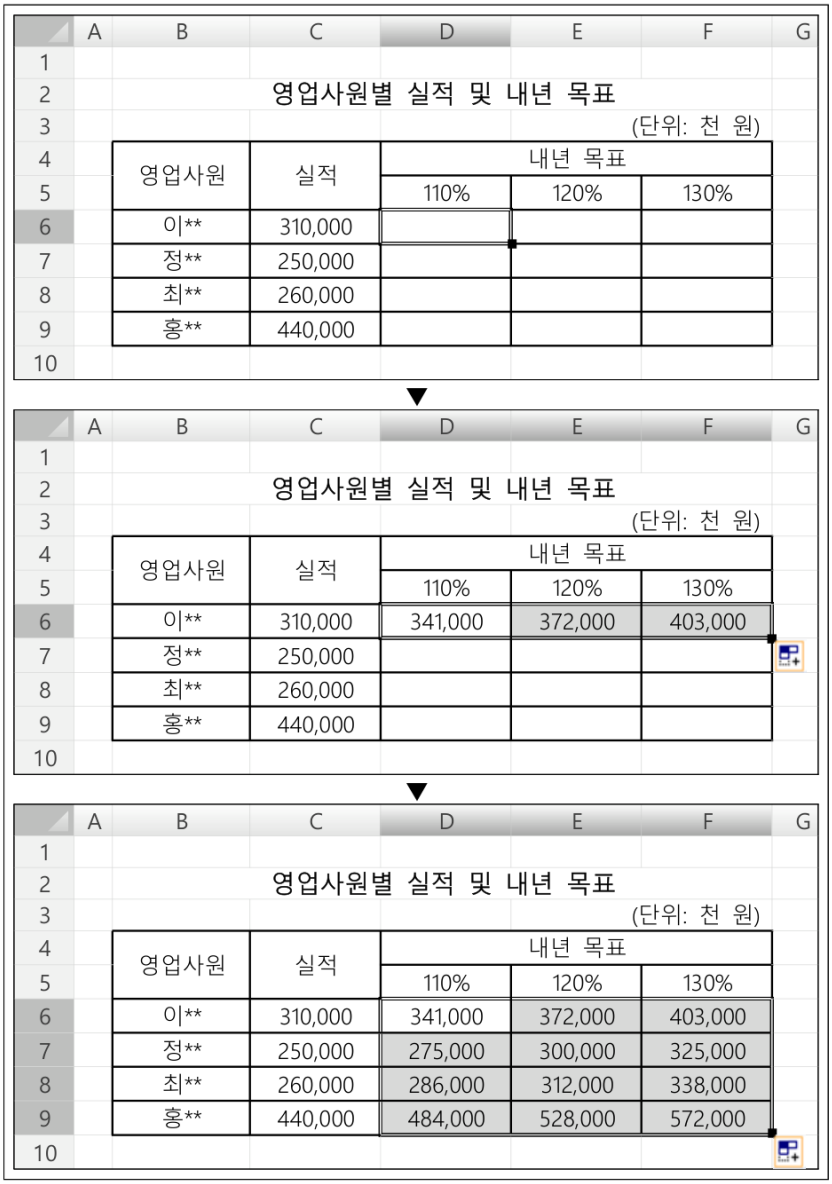
MATCH 함수의 세 번째 인수가 1이면 범위가 오름차순인지 확인한 뒤, 찾을 값 이하의 최댓값을 고르고 그 값의 범위 내 상대적 위치를 센다.

암기 포인트

MATCH의 일치 유형 1은 오름차순 범위에서 '찾을 값 이하의 최댓값 위치'를 반환한다.

NoteBase

6. 다음 워크시트에 영업사원별 실적이 입력되어 있다. 내년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D6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D6셀의 채우기 핸들을 F6셀까지 드래그하여 수식을 복사한 다음, 두 번째 그림의 채우기 핸들을 나머지 셀까지 드래그하여 수식을 복사하고자 한다. D6셀에 입력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영업사원별 실적 및 내년 목표

(단위: 천 원)

영업사원	실적	내년 목표		
		110%	120%	130%
이**	310,000			
정**	250,000			
최**	260,000			
홍**	440,000			

▼

영업사원별 실적 및 내년 목표

(단위: 천 원)

영업사원	실적	내년 목표		
		110%	120%	130%
이**	310,000	341,000	372,000	403,000
정**	250,000			
최**	260,000			
홍**	440,000			

▼

영업사원별 실적 및 내년 목표

(단위: 천 원)

영업사원	실적	내년 목표		
		110%	120%	130%
이**	310,000	341,000	372,000	403,000
정**	250,000	275,000	300,000	325,000
최**	260,000	286,000	312,000	338,000
홍**	440,000	484,000	528,000	572,000

① =$C6*D$5 ② =$C6*$D$5

③ =$C$6*D$5 ④ =$C$6*$D$5

정답 1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가로와 세로 방향에 복사할 때, 변하지 않아야 할 행·열과 이동해야 할 행·열을 구분하여 혼합 참조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실적은 C6:C9에 있고, 목표 비율은 D5:F5에 있다.
구해야 할 값: 각 영업사원의 실적에 각 열의 목표 비율을 곱한 내년 목표이다.
주의할 조건: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할 때 실적의 C열은 고정되고 목표 비율의 열은 D→E→F로 이동해야 한다. 아래쪽으로 복사할 때 실적의 행은 6→7→8→9로 이동하고 목표 비율의 5행은 고정되어야 한다.

사용할 공식

D6에 입력할 수식은 $=\$C6*D\$5$이다.

실적 셀은 열만 고정해야 하므로 $\$C6$, 목표 비율 셀은 행만 고정해야 하므로 $D\$5$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야 가로 복사와 세로 복사에서 필요한 부분만 변한다.

계산 과정

1. D6에서는 C6의 310,000에 D5의 110%를 곱하여 341,000을 구한다.
2. 오른쪽으로 복사하면 E6은 $=\$C6*E\$5$, F6은 $=\$C6*F\$5$가 되어 각각 372,000과 403,000이 된다.
3. 아래쪽으로 복사하면 D7은 $=\$C7*D\$5$가 되어 실적 행만 바뀌며, 같은 방식으로 모든 영업사원의 목표가 계산된다.

선지 판단

① O — $=\$C6*D\$5$는 실적의 C열과 비율의 5행만 고정한다. 오른쪽 복사 시 비율 열이 D→E→F로 바뀌고, 아래쪽 복사 시 실적 행이 6→7→8→9로 바뀌므로 표 전체에 맞는 수식이다.

② X — $=\$C6*\$D\$5$의 '$\$D\$5$'는 비율의 열과 행을 모두 고정하므로 오른쪽으로 복사해도 계속 110%만 참조한다. 틀린 표현 $\$D\$5$는 올바르게는 $D\$5$이다.

③ X — $=\$C\$6*D\$5$의 '$\$C\$6$'은 실적의 행까지 고정하므로 아래쪽으로 복사해도 계속 C6의 310,000을 참조한다. 틀린 표현 $\$C\$6$은 올바르게는 $\$C6$이다.

④ X — $=\$C\$6*\$D\$5$는 실적 C6과 비율 D5를 모두 절대 참조하므로 어느 방향으로 복사해도 두 참조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틀린 수식은 올바르게는 $=\$C6*D\$5$이다.

따라서 조건에 맞는 수식은 ①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원본 셀을 고정한다’는 생각으로 두 셀을 모두 절대 참조하면 안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실적에서는 C열만, 목표 비율에서는 5행만 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②는 가로 복사 시 비율이 바뀌지 않고, ③은 세로 복사 시 영업사원별 실적이 바뀌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식이 복사되는 방향을 먼저 확인한 뒤, 각 참조에서 바뀌면 안 되는 부분에만 $를 붙인다. 세로로 내려가도 같은 열이어야 하면 열 문자 앞을 고정하고, 가로로 이동해도 같은 행이어야 하면 행 번호 앞을 고정한다.

암기 포인트

$*C*6은 열 고정·행 이동, *D*$5는 열 이동·행 고정이다.

NoteBase

7. Customer(custid, name, age, sex, address, grade) 테이블에 대한 SQL문 중 문법이 옳은 것은?
   ① SELECT name, grade, COUNT(grade) FROM Customer GROUP grade;
   ② SELECT * FROM Customer WHERE grade='SILVER' OR grade='GOLD';
   ③ SELECT age, sex, COUNT(*) FROM Customer GROUP BY age, sex WHERE address='부산';
   ④ SELECT DISTINCT address FROM Customer EXISTS (SELECT * FROM Customer WHERE age<30 AND grade='VIP');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SELECT 문의 기본 절 순서와 GROUP BY, EXISTS의 올바른 문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ELECT 문의 기본 절 순서는 SELECT → FROM → WHERE → GROUP BY이다. GROUP BY는 묶을 열을 지정하며, 집계 결과와 함께 조회하는 일반 열은 원칙적으로 GROUP BY에 포함해야 한다. EXISTS는 서브쿼리의 결과 행이 하나라도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조건식이므로 WHERE 또는 HAVING에서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GROUP grade와 집계되지 않은 name을 그대로 조회한 부분이다. GROUP에는 BY가 필요하고, name은 GROUP BY에 없으므로 올바르게는 SELECT grade, COUNT(grade) FROM Customer GROUP BY grade;와 같이 쓴다.

② O
WHERE 절에서 grade가 'SILVER'이거나 'GOLD'인 행을 OR로 연결해 조회한 문장으로, SELECT → FROM → WHERE의 절 순서와 조건식의 문법이 모두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GROUP BY 뒤에 WHERE를 쓴 절 순서이다. WHERE는 그룹화 전에 행을 거르는 절이므로 올바르게는 SELECT age, sex, COUNT(*) FROM Customer WHERE address='부산' GROUP BY age, sex;라고 쓴다.

④ X
틀린 부분은 FROM Customer 바로 뒤에 EXISTS를 쓴 부분이다. EXISTS는 조건식이므로 올바르게는 SELECT DISTINCT address FROM Customer WHERE EXISTS (SELECT * FROM Customer WHERE age<30 AND grade='VIP');라고 쓴다.

오답 포인트

①은 BY의 누락뿐 아니라 SELECT의 name도 GROUP BY 규칙에 어긋난다. ③은 WHERE와 GROUP BY의 위치를 뒤바꿨고, ④는 EXISTS 앞의 WHERE를 생략했다. SQL 키워드가 모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법이 맞다고 판단하기 쉬운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SELECT → FROM → WHERE → GROUP BY 순서를 확인한다. 집계 함수가 있으면 일반 조회 열이 GROUP BY에 포함되는지 살피고, EXISTS가 WHERE 또는 HAVING의 조건식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행 조건은 WHERE, 그룹 지정은 GROUP BY, 존재 여부 조건은 WHERE EXISTS이다.

NoteBase

8.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데이터가 입력(특징 벡터)과 출력(목푯값)의 쌍으로 주어진다.

② 상태(state)-행동(action)-보상(reward)의 체계로 구성된다.

③ 군집 개수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자가 유사도를 설정하여 군집 개수를 조절한다.

④ 장바구니 분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하나의 항목이 다른 항목과 함께 발생하는 패턴을 찾아낸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도학습과 강화학습·군집분석·연관분석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도학습: 입력 데이터와 그에 대응하는 정답인 목표값을 함께 학습하여 새로운 입력의 출력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보상을 받으며 누적 보상을 크게 하는 정책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군집분석: 정답표가 없는 데이터를 유사한 특성끼리 묶는 비지도학습 방법이다.
연관분석: 여러 항목이 함께 나타나는 동시 발생 규칙을 찾는 비지도학습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도학습에서는 각 학습 데이터가 입력인 특징 벡터와 정답인 출력 또는 목표값의 쌍으로 주어진다.
② X — '상태-행동-보상 체계'는 지도학습이 아니라 강화학습의 구성이다. 올바르게는 '강화학습은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보상을 받는 체계로 구성된다'이다.
③ X — '군집 개수를 미리 지정할 필요가 없고 자기 유사도를 설정하여 군집 개수를 조절한다'는 친화도 전파와 같은 군집화 기법의 설명이며 지도학습의 일반적 특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지도학습은 입력과 목표값의 쌍을 이용해 예측 규칙을 학습한다'이다.
④ X — '한 항목이 다른 항목과 함께 발생하는 패턴을 찾는다'는 지도학습이 아니라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하는 연관분석의 설명이다. 올바르게는 '연관분석은 항목들이 함께 발생하는 규칙을 찾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②~④도 모두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올바른 설명처럼 보이지만, 각각 강화학습·군집분석·연관분석을 가리킨다. 질문이 요구하는 '지도학습'의 핵심 표지는 입력과 목표값이 짝을 이룬 학습 데이터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입력+정답(레이블·목표값)’이면 지도학습, ‘상태-행동-보상’이면 강화학습, ‘유사한 데이터끼리 묶기’이면 군집분석, ‘함께 발생하는 항목 찾기’이면 연관분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도학습은 입력-정답 쌍, 강화학습은 상태-행동-보상, 군집분석은 유사성으로 묶기, 연관분석은 동시 발생 찾기이다.

NoteBase

9. 공개키 암호화 방법을 사용하여 Alice가 Bob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Bob은 Alice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lice는 Bob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평문을 암호화한다.

② Bob은 자신의 개인키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복호화한다.

③ 공개키 암호화 방법은 AES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④ 공개키 암호화 방법의 키는 공개키와 개인키로 구성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공개키 암호화에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사용하는 키의 역할을 알고, 공개키 암호 방식과 대칭키 암호 방식인 AES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개키 암호화: 서로 짝을 이루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하는 비대칭키 암호 방식이다. 기밀성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수신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복호화한다.
AES: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Alice는 Bob만 평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Bob의 공개키로 평문을 암호화한다.
② O — Bob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암호문은 그 공개키와 짝을 이루는 Bob의 개인키로 복호화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공개키 암호화 방법은 AES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다'이다. AES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라 하나의 비밀키를 공유하여 암호화와 복호화에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올바르게는 공개키 암호화 방법은 서로 짝을 이루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는 비대칭키 암호 방식이라고 해야 한다.
④ O — 공개키 암호화 방법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공개키와 소유자만 비밀로 보관하는 개인키가 한 쌍을 이룬다.

오답 포인트

③은 AES도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개키 암호 방식과 혼동하게 한다. AES는 '암호화 알고리즘'이지만 공개키와 개인키의 쌍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아니며,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방식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메시지의 기밀성을 위한 공개키 암호화에서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 →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의 대응을 확인한다. 공개키·개인키의 쌍이 나오면 비대칭키 방식이고, AES처럼 하나의 비밀키를 함께 사용하면 대칭키 방식이다.

암기 포인트

받는 사람의 공개키로 잠그고, 받는 사람의 개인키로 연다. AES는 대칭키이다.

NoteBase

10. 네트워크 공격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SQL Injection 공격은 공격자가 네트워크 패킷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세션 ID를 탈취함으로써 이미 인증된 사용자의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공격이다.

② SYN Flooding 공격은 TCP 연결 설정 과정인 3-way Handshaking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공격 대상 서버에 다량의 SYN 패킷을 보내는 공격이다.

③ Smurf 공격은 ICMP echo request 패킷의 출발지 IP 주소를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위조하여 네트워크 전체에 브로드캐스트하는 공격이다.

④ Land 공격은 패킷 전송 시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같은 값으로 설정하여 공격 대상에게 전송하는 공격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네트워크 공격의 명칭과 공격에 이용하는 프로토콜·주소 조작 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SQL Injection: 입력값에 악의적인 SQL 구문을 삽입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질의가 의도와 다르게 실행되게 하는 공격이다.
세션 하이재킹: 세션 ID 등 인증된 사용자의 세션 정보를 탈취하여 그 사용자인 것처럼 접근하는 공격이다.
SYN Flooding: 다량의 SYN 패킷으로 TCP의 반개방 연결을 쌓아 서버 자원을 고갈시키는 공격이다.
Smurf: 피해자의 IP 주소로 출발지를 위조한 ICMP echo request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보내 다수의 응답이 피해자에게 집중되게 하는 공격이다.
Land: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공격 대상의 같은 주소로 위조한 패킷을 보내는 공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SQL Injection'이다. 네트워크 패킷에서 세션 ID를 탈취해 인증된 사용자의 권한으로 접속하는 것은 세션 하이재킹이다. SQL Injection은 입력값에 악의적인 SQL 구문을 삽입하여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변조하는 공격이다.
② O — SYN Flooding은 TCP 3-way Handshaking에서 SYN을 받은 서버가 연결 정보를 일정 시간 유지한다는 점을 이용한다. 다량의 SYN 패킷을 보내 반개방 연결을 누적시켜 서버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설명이 맞다.
③ O — Smurf 공격은 ICMP echo request의 출발지 IP를 피해자의 IP로 위조하고 이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전송한다. 여러 호스트의 echo reply가 피해자에게 집중되게 한다는 설명이 맞다.
④ O — Land 공격은 출발지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를 공격 대상의 동일한 주소로 설정한 위조 패킷을 보내 시스템에 부하나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이므로 설명이 맞다.

오답 포인트

①은 공격 과정의 설명 자체가 아니라 공격 명칭을 바꿔 놓았다. '세션 ID 탈취'라는 표현은 데이터베이스 질의를 조작하는 SQL Injection이 아니라 인증 세션을 가로채는 세션 하이재킹의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격별 핵심 대상을 먼저 확인한다. SQL 구문·데이터베이스 질의는 SQL Injection, 세션 ID·인증 권한 탈취는 세션 하이재킹, 다량의 SYN과 반개방 연결은 SYN Flooding, 위조 출발지와 ICMP 브로드캐스트는 Smurf, 동일한 출발지·목적지 IP는 Land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SQL은 DB 질의, 세션 ID는 하이재킹, SYN은 반개방 연결, Smurf는 ICMP 증폭, Land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하다.

NoteBase

11.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급종합병원 중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000억 원 이상인 기관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정보보호 정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예비인증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ㄷ.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유효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 유효성이 상실될 수 있다.
ㄹ.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관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의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예비인증의 운영 방식, 인증 취득 후 사후심사 의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금액·이용자 수의 기준과 예비인증의 시험운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ISMS는 조직이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지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예비인증은 아직 본인증에 필요한 2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제 서비스 운영 전에 관련 시스템을 임시로 구축·시험운영하여 받는 조건부 인증이다. 사후심사는 인증 취득 후에도 관리체계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이면 의무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 의무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예비인증은 실제 서비스 전 관련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전제로 하며, 인증 취득자는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틀리고 ㄷ과 ㄹ은 옳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ㄱ의 '1,000억 원 이상'은 금액 기준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표현은 '상급종합병원 중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기관은 의무대상 기준에 해당한다'이다. ㄴ의 '예비인증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도 잘못되었다. 올바른 표현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비인증은 실제 서비스 운영 전에 관련 시스템을 임시로 구축하여 시험운영하는 제도이다'이다.
② X — ㄹ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ㄱ의 '1,000억 원 이상'이며, 올바른 기준은 '1,500억 원 이상'이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을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ㄴ의 '예비인증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이며, 올바르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예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서비스 전 시험운영을 통해 심사한다.
④ O — ㄷ과 ㄹ이 모두 옳다. 인증 취득자는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사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은 각각 독립된 의무대상 기준이므로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오답 포인트

ㄱ의 1,000억 원을 실제 기준인 1,500억 원과 혼동하거나, 예비인증을 운영 실적이 전혀 필요 없는 서류상 인증으로 오해하기 쉽다. 예비인증은 본인증처럼 2개월 이상 실제 서비스를 운영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을 뿐, 실제 서비스 전 관련 시스템의 시험운영은 필요하다. 또한 ㄹ의 두 기준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독립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무대상 문항에서는 대상별 숫자와 접속어를 먼저 확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500억 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100억 원,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으로 구분한다. 예비인증은 '2개월 이상 운영 실적의 예외'와 '실제 서비스 전 시험운영'을 함께 기억하고, 인증 취득 후에는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사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상급종합병원 1,500억 원, 정보통신서비스 100억 원 또는 100만 명, 예비인증은 시험운영, 사후심사는 연 1회 이상이다.

NoteBase

12. 프로세스 상태 전이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는 할당된 시간을 모두 사용하면 인터럽트에 의해 준비 상태로 전이된다.

② 대기 상태의 프로세스는 기다리던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실행 상태로 전이되어 남은 연산을 수행한다.

③ 준비 상태의 프로세스는 CPU를 할당받기만 하면 즉시 실행될 수 있는 상태로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④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시스템 호출을 통해 입출력 작업을 요청하면 해당 프로세스는 CPU를 반납하고 대기 상태로 전이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프로세스의 실행·준비·대기 상태가 어떤 사건에 따라 서로 전이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행 상태: CPU를 할당받아 명령을 수행하는 상태이다.
준비 상태: 메모리에 적재되어 CPU를 할당받기만 기다리는 상태이다.
대기 상태: 입출력이나 특정 사건의 완료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주요 전이는 실행→준비(시간 할당량 만료 등), 실행→대기(입출력 요청), 대기→준비(입출력·사건 완료), 준비→실행(CPU 할당)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시간 할당량이 만료되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프로세스는 CPU를 반납한 뒤 준비 상태로 전이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즉시 실행 상태로 전이'이다. 기다리던 작업이 완료된 프로세스는 먼저 준비 상태로 전이하며, 이후 스케줄러에게 CPU를 할당받아야 실행 상태가 된다. 올바르게는 '기다리던 작업이 완료되면 준비 상태로 전이되어 CPU 할당을 기다린다'이다.
③ O — 준비 상태는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메모리에 적재된 채 CPU 할당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④ O —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입출력을 요청하면 입출력 완료 전까지 CPU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CPU를 반납하고 대기 상태로 전이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에서 대기 원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곧바로 CPU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작업 완료는 대기→준비 전이의 조건일 뿐이며, 준비→실행 전이에는 별도의 CPU 할당이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상태에서 프로세스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로 판단한다. CPU를 사용 중이면 실행, CPU 할당을 기다리면 준비, 입출력이나 사건 완료를 기다리면 대기 상태이다. 사건이 완료된 프로세스는 준비 상태를 거쳐 CPU를 할당받은 뒤 실행 상태가 된다.

암기 포인트

시간 만료는 실행→준비, 입출력 요청은 실행→대기, 입출력 완료는 대기→준비이다.

NoteBase

13.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온프레미스(on-premise) 환경은 기관 자체적으로 서비스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를 설정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인증 단계를 통해 계정 도용 피해를 줄일 수 있다.
ㄷ. 책임 공유 모델(shared responsibility model)을 통해 보안, 성능, 품질 등의 영역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책임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온프레미스의 의미, 다중 요소 인증(MFA)의 보안 효과,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의 의미를 각각 판단하여 옳은 진술의 조합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온프레미스(on-premise)는 기관이 자체 시설에 서버·네트워크 등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는 비밀번호 외에 소지 정보나 생체 정보 등 서로 다른 인증 요소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도 계정 탈취 위험을 낮춘다.
책임 공유 모델(shared responsibility model)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사용자가 보안·운영·성능·품질 등에 관한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원칙이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IaaS, PaaS, SaaS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옳지만 ㄷ도 옳으므로 'ㄱ, ㄴ'만 고른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② X —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ㄱ, ㄷ'만 고른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③ X —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으므로 'ㄴ, ㄷ'만 고른 부분이 틀렸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이다.
④ O — ㄱ은 자체 인프라 구축을 뜻하는 온프레미스의 설명이고, ㄴ은 추가 인증 요소가 비밀번호 유출 시 계정 도용 위험을 줄인다는 설명이며, ㄷ은 사업자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한다는 책임 공유 모델의 설명이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MFA는 비밀번호 유출 자체를 막는 기술이 아니라, 유출된 비밀번호만으로는 로그인이 완료되지 않게 하여 계정 도용 위험을 줄이는 기술이다. 또한 책임 공유 모델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업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원칙이다. 이 두 표현을 과도하게 해석하면 ㄴ이나 ㄷ을 빠뜨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온프레미스는 '자체 구축·직접 운영', MFA는 '서로 다른 인증 요소의 추가 확인', 책임 공유 모델은 '사업자와 사용자의 책임 분담'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형 선지는 각 진술을 먼저 독립적으로 O/X 판정한 뒤 해당 조합을 찾는다.

암기 포인트

온프레미스는 자체 구축, MFA는 추가 인증, 책임 공유 모델은 책임 분담이다.

NoteBase

[14 ~ 15]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

A: Good morning. How can I help you today?
B: Hi,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Toronto, Canada.
A: Sure. Please put it on the scale. It's 1.2 kilograms.
Do you want to send it by regular mail or by registered mail?
B: I will use registered mail, please. How much is it?
A: It's 27 dollars plus tax. _____?
B: Yes. I want to buy 10 stamps.
A: Okay. The total cost is 52 dollars.
B: Here is my credit card.

① May I see your ID card
② Do you want to add insurance
③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④ How many packages do you hav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체국 대화에서 빈칸 바로 뒤의 응답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추가 용무 질문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는 '그 밖에 원하시는 것이 있나요?'라는 뜻으로, 거래를 마치기 전에 추가 용무나 구매 의사를 확인하는 표현이다. 이에 'Yes, I want to buy 10 stamps.'라고 답하면 질문과 응답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May I see your ID card?’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다. 뒤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응답이 와야 하므로 우표 10장을 사고 싶다는 말과 연결되지 않는다. 빈칸에는 추가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가 알맞다.
② X — ‘Do you want to add insurance?’는 소포에 보험을 추가할 것인지 묻는 말이다. 그렇다고 답한다면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우표 구매 응답과 맞지 않는다. 우표 구매 여부를 직접 묻는 표현으로 고치면 ‘Do you want to buy any stamps?’가 된다.
③ O —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는 다른 용무나 추가로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묻는 말이다. 이에 고객이 ‘Yes’라고 한 뒤 우표 10장을 사고 싶다고 덧붙이는 흐름이 정확히 맞는다.
④ X — ‘How many packages do you have?’는 소포가 몇 개인지 묻는 말이므로 개수를 답해야 한다. ‘packages’가 잘못된 핵심 표현이며, 우표의 수를 묻는 뜻이라면 ‘How many stamps would you like?’가 알맞다.

오답 포인트

‘Yes’만 보고 ②처럼 예·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면 안 된다. ‘Yes’ 뒤에 이어지는 핵심 내용은 ‘우표 10장을 사고 싶다’이므로, 보험이나 신분증이 아니라 추가 구매 의사를 포괄적으로 묻는 ③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화의 빈칸 문제에서는 빈칸 뒤 응답의 핵심 명사와 행동을 먼저 확인한다. 이 문항에서는 ‘buy 10 stamps’가 핵심이므로, 다른 물건을 추가로 원하는지 묻는 질문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anything else는 ‘그 밖에 더 필요한 것’, How many는 반드시 수량을 묻는 표현이다.

NoteBase

[14 ~ 15]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

A: Hello. I'd like to open a new savings account, please.
B: Certainly. Do you have your identification card with you?
A: Yes, here is my driver's license.
B: Great.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form. Would you also like to apply for a check card with this account?
A: Yes, I'd like that. _____?
B: It usually takes about 3 to 5 business days for the card to arrive at your home.
A: Okay. That's fine.

① Is there an annual fee for this card
② How long does it take to receive the card
③ Can I use this card for public transportation
④ Does this account come with a physical bankbook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빈칸 뒤의 응답이 직접 답하는 질문을 찾아 대화의 흐름을 완성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A는 새 예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 카드를 신청하려 한다. A가 빈칸에서 질문하자 B는 카드가 집에 도착하는 데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린다고 답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카드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핵심 개념

대화의 빈칸은 바로 뒤 응답의 핵심 정보와 질문의 초점이 일치해야 한다. 'It usually takes about 3 to 5 business days'는 소요 시간을 나타내므로 'How long does it take ...?'와 대응한다.

적용 기준

응답에서 시간 표현인 '3 to 5 business days'와 동사 'takes'를 확인한다. 이는 비용, 사용 가능 여부, 통장 제공 여부가 아니라 카드 수령 소요 기간에 관한 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Is there an annual fee for this card?’는 카드의 연회비 유무를 묻는다. 뒤의 말은 배송 기간을 답하므로 연결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연회비가 있는지 또는 얼마인지 답해야 한다.
② O — ‘How long does it take to receive the card?’는 카드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다. B의 ‘보통 영업일 기준 3~5일이 걸린다’는 응답과 정확히 이어진다.
③ X — ‘Can I use this card for public transportation?’은 대중교통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뒤의 말은 사용 가능 여부가 아니라 배송 기간을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해야 한다.
④ X — ‘Does this account come with a physical bankbook?’은 계좌에 실물 통장이 제공되는지를 묻는다. 뒤의 말은 실물 통장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카드 배송 기간이다. 올바르게는 실물 통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답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 ③, ④도 은행 업무와 관련된 자연스러운 질문이라 상황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빈칸 문제에서는 넓은 상황보다 바로 뒤 응답의 ‘takes’와 ‘3 to 5 business days’가 가리키는 시간 정보를 우선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뒤 응답에서 답의 종류를 먼저 판별한다. 기간이면 how long, 가격이면 how much, 가능 여부이면 can 또는 do로 시작하는 질문을 대응시킨다.

암기 포인트

‘It takes + 기간’은 ‘How long does it take?’에 대한 대표적인 응답이다.

NoteBase

1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Green Delivery Initiative of the national postal service has increased public awareness of energy-efficient logistics while _____ more sustainable transportation practices by expanding the use of electric delivery vehicles and reducing overall carbon emissions.

① pushing for ② breaking up
③ holding off ④ getting over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의 긍정적인 흐름과 이어지는 구동사의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은 국가 우편 서비스의 친환경 배송 계획이 에너지 효율적 물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전기 배송 차량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더 지속 가능한 운송 관행을 추진한다는 뜻이다.
push for는 어떤 목표나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강하게 요구하거나 추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친환경 운송 관행을 확대한다는 문맥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pushing for는 '~을 강하게 요구하다, 추진하다'라는 뜻이다. 전기 배송 차량의 사용 확대와 탄소 배출량 감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송 관행을 추진한다는 문맥에 정확히 맞는다.
② X — breaking up은 '분리하다, 해체하다, 관계를 끝내다'라는 뜻이어서 친환경 운송 관행을 확대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breaking up은 pushing for로 고쳐야 한다.
③ X — holding off는 '미루다, 지연시키다'라는 뜻이어서 친환경 운송 관행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흐름과 반대된다. 틀린 표현 holding off는 pushing for로 고쳐야 한다.
④ X — getting over는 '극복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며 보통 어려움·질병·충격 등을 목적어로 취한다. transportation practices를 목적어로 삼아 '관행을 추진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틀린 표현 getting over는 pushing for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형태만 보고 아무 구동사나 고르면 안 된다. expanding과 reducing은 지속 가능한 운송 관행을 실제로 촉진하는 방법이므로, 지연을 뜻하는 holding off나 극복을 뜻하는 getting over가 아니라 추진을 뜻하는 pushing for가 필요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의 행동이 목적어를 촉진하는지, 중단하는지, 미루는지, 극복하는지를 먼저 구분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요구·추진하는 문맥이면 push for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push for는 목표·정책·변화를 '추진하다', hold off는 '미루다', break up은 '분리·해체하다', get over는 '극복하다'이다.

NoteBase

1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How do our personal relationships affect our health?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s becoming a public health problem.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some countries up to one in three older people feel ① lonely. Family, friends, and communities therefore ② are played an important part in helping us lead healthy lives through: Strong relationships with family, friends, and colleagues ③ provide emotional support, allow people to develop social skills, and help them face challenges. Ties within and across communities enable people to help and learn from each other. ④ Participating in activities within the community offers people a sense of purpose and builds a shared identity.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문장 성분의 역할에 따라 형용사 보어, 능동·수동태,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성분이며, 감각·상태를 나타내는 연결동사 feel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올 수 있다.
능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경우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경우이다.
동사는 주어의 수에 일치해야 하며, 동명사구가 주어이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단수 동사를 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feel은 여기서 '~하게 느끼다'라는 연결동사이고, lonely는 older people의 상태를 설명하는 형용사 보어이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are played이다. 주어 Family, friends, and communities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능동 의미이므로 수동태가 아니라 play를 써서 'Family, friends, and communities therefore play an important part ...'로 고쳐야 한다.
③ O — 주어 Strong relationships는 복수이므로 복수형 동사 provide가 알맞다. 또한 뒤의 allow, help와 병렬 구조를 이룬다.
④ O — Participating in activities within the community 전체가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명사구 주어이므로 단수 동사 offers가 알맞다. 뒤의 builds도 같은 주어에 연결된 단수 동사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are played는 형태만 보면 문법적인 수동태처럼 보이지만, 사람과 공동체가 역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는' 주체이다. play an important part라는 능동 표현을 수동태로 잘못 바꾼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만 보지 않고 먼저 각 문장의 주어와 의미상 행위자를 찾는다.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면 능동태, 동작을 당하면 수동태를 선택하고, 이어서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해 동사의 수를 맞춘다. feel 같은 연결동사 뒤에서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보어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feel + 형용사, 복수 주어 + 복수 동사, 동명사구 주어 + 단수 동사, play an important part는 능동 표현이다.

NoteBase

18.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The formulation of the family as a system in the environment and of the individual as a subsystem in the family is one of the most dynamic and useful developments in mental health counseling. The family systems concept, although sometimes presented as a separate theory, is a natural fit with ecological concepts because both approaches are built on the notion of interrelationships. Ecological theory adds a key element to our study of the family system in that it reminds us to include in our understanding both the physical and the wider social environment; these are essential components in the quality of life pertaining to the basic unit of society—the family. The view of the family in the wider environment expands the concept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include the family's ability to meet the members' physical needs, as well as the impact of such forces as natural disasters, government policy, and macro economics.

① External Threats to Family Stability
② Family Systems in an Ecological Perspective
③ Counseling Approaches to Individual Family Members
④ Social Changes and the Decline of the Family Systems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글의 중심 소재와 반복되는 핵심 관계를 묶어 가장 포괄적인 제목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족체계 관점은 가족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체계로 보는 관점이다. 생태학적 관점은 가족을 물리적 환경과 더 넓은 사회적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글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 자연재해, 정부 정책, 거시경제 등 외부 환경과의 상호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족 안정에 대한 외부의 위협'은 자연재해·정부 정책 등 마지막 부분의 일부 사례만 강조하므로 글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올바르게는 외부 위협만이 아니라 가족체계와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상호관계를 다룬 글이다.
② O — 글은 가족을 체계로, 개인을 가족의 하위체계로 보고 이를 생태학적 관점과 결합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가족체계'가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낸다.
③ X — '개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 접근법'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개인별 상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환경 속의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을 설명한다.
④ X — '가족체계의 쇠퇴'라는 표현이 틀렸다. 글은 사회 변화로 가족이 쇠퇴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올바르게는 가족체계의 이해 범위를 물리적·사회적 환경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외부 위협은 지문 끝에 제시된 자연재해·정부 정책·거시경제에만 시선을 묶는 함정이다. 제목은 일부 예시가 아니라 글 전반에서 반복되는 family system, ecological concepts, environment, interrelationships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 문제에서는 첫 문단의 주제 제시와 글 전체의 반복어를 먼저 연결한다. 특정 사례만 담은 선지나 지문에 없는 평가를 덧붙인 선지는 제외하고, 중심 소재와 관점을 함께 담은 선지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가족체계 + 환경과의 상호관계 = 생태학적 관점의 가족체계이다.

NoteBase

19.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In classic free-market economics, economic activity aims to satisfy consumer demand. People are made happy—human welfare or well-being increases—when they get what they desire. Overall human happiness is increased, therefore, whe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consumer demand increases. The law of supply and demand tells us that economies should, and healthy economies do, produce (supply) those goods and services that consumers most want (demand). Because scarcity and competition prevent everyone from getting all that they want, the goal of free-market economics is to optimally satisfy wants and thus maximize happiness. Free markets accomplish this goal most efficiently, according to defenders, by allowing individuals to decide for themselves what they most want and then bargain for these goods in a free and competitive marketplace.

① The aim of economic activity in classic free-market economics is to satisfy consumer demand.
② Satisfaction level of consumer demand is linked to the degree of human happiness.
③ Healthy economies produce the goods and services that suppliers most want.
④ The goal of free markets can be accomplished most efficiently in a free and competitive marketplac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전적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지문의 명시적 진술을 선지와 대조하고, 수요의 주체가 바뀐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지문에서 고전적 자유시장 경제의 목적은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여 소비자 수요를 최적으로 충족하고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건강한 경제가 생산하는 대상도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첫 문장에서 경제 활동은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한다.
② O — 지문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행복이 커지므로, 소비자 수요의 전반적 충족이 증가하면 인간의 전반적 행복도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suppliers most want(공급자가 가장 원하는)'이다. 지문은 건강한 경제가 'consumers most want(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한다. 올바르게는 '건강한 경제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이다.
④ O — 지문은 자유시장이 개인의 선택과 협상을 허용하는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그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한다고 설명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지문의 supply와 demand를 보고 생산의 기준을 공급자의 욕구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produce는 경제의 행위이고, 무엇을 생산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consumers most want, 즉 소비자 수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 일치 문제에서는 선지의 주체·대상·비교급 표현을 지문의 대응 문장과 대조한다. 이 문항에서는 suppliers와 consumers의 교체 여부를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자유시장 경제: 소비자 수요 충족 → 행복 극대화, 생산 기준은 공급자의 욕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수요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n you meet people for the first time, you can control the way you look and what you say. But what about something you have said or done online? Do you know that many employers review job applicants' social media posts in their hiring process? The ___(A)___ of data you leave when using the internet—for example, the websites you visit and the emails you send—is your digital footprint. You might not be aware of how your digital affects real life, but in fact, it can really matter. James Stewart, an American filmmaker and actor, was fired from his project because people found some of his old social media posts ___(B)___.

	(A)	(B)
①	volume	actual
②	volume	informative
③	trail	ethical
④	trail	offensiv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의 정의와 해고의 원인이 된 게시물의 성격을 문맥에 맞는 어휘로 완성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igital footprint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남기는 데이터의 흔적을 뜻한다. 따라서 (A)에는 '흔적'을 뜻하는 trail이 알맞다. 또한 오래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발견되어 프로젝트에서 해고되었다는 결과가 이어지므로, (B)에는 '불쾌감을 주는, 모욕적인'을 뜻하는 offensive가 알맞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volume은 '양', actual은 '실제의'라는 뜻이므로 데이터가 남기는 '흔적'과 해고를 초래한 게시물의 부정적 성격을 나타내지 못한다. 틀린 표현 volume / actual은 각각 trail / offensive로 고쳐야 한다.
② X — volume은 '양', informative는 '유익한, 정보를 주는'이라는 뜻이다. 해고의 원인이 된 게시물을 informative라고 보는 것은 문맥과 반대이다. 틀린 표현 volume / informative는 각각 trail / offensive로 고쳐야 한다.
③ X — (A)의 trail은 digital footprint를 '데이터의 흔적'으로 정의하므로 알맞지만, ethical은 '윤리적인'이라는 뜻이어서 해고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틀린 표현 ethical은 offensive로 고쳐야 한다.
④ O — trail은 인터넷 사용 중 남기는 데이터의 '흔적'을, offensive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의 성격을 정확히 나타낸다. 두 빈칸 모두 문맥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A)만 보면 volume of data도 문법적으로 가능한 결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의 digital footprint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데이터의 '흔적'을 가리킨다. (B)는 게시물이 발견된 뒤 해고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부정적 의미의 offensive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의 단어만 보지 않고 이어지는 정의와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digital footprint = trail of data'라는 정의를 잡고, '게시물 발견 → 해고'라는 결과에서 offensive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digital footprint는 trail of data, 해고를 부른 문제 게시물은 offensive posts이다.

NoteBase